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

박 사 명**

I. 서론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지역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기록한다. 그것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지리적 외연의 확대단계를 거쳐 이제 기능적 내포의 심화단계에 들어선다. 2015년 출범하는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진전을 표상한다. 그러나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되는 21세기의 시간적 조건과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심화되는 동아시아의 공간적 조건에서 최근 심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세계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전략조정¹⁾에 따라 역외환경이 반전하고, 동중국해의 중일(中日)분쟁과 남중국해의 지역분쟁에 따라 역내정세가 악화된다. 밑으로부터 경제적 지역화의 진전과 대조되는 위로부터 정치적 지역주의(regionalism)의 부진에 따라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에 대한 높은 기대와 깊은 우려가 끊임없이 부침한다.

이와 같이 지극히 유동적인 국면에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중

* 이 논문은 2013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과제번호 -120131217). 세 심사위원의 유익한 조언에 감사한다.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mpark@kangwon.ac.kr

심역할(central role) 및 ‘추진동력(driving force)’을 자임하는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은 두 지역주의적 기획의 상호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전략적 과제를 제기하며, 그것은 다시 국제관계의 다양한 이론적 시각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아세안공동체는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등 3축으로 구성된다.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ASEAN+3(한국·중국·일본)의 제1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1999-2001)은 2001년 보고서를 통하여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며,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2011-2012)은 2012년 보고서를 통하여 20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다(ASEAN 2012a). 그와 같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중첩하는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성찰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모두 중요한 과제이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공산혁명과 미국의 봉쇄전략에 따라 동북아와 동남아의 지리적 경계를 강화하는 냉전체제의 이완 및 해체가 초래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geopolitical), 지경학적(geo-economic), 지문화적(geocultural) 변동을 반영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가속적 부상과 일본의 만성적 정체에 따라 심화되는 동북아의 역내갈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에 따라 동북아와 동남아의 경제통합이 가속되고, 1997년 경제위기 이전의 일본주도적 ‘기러기떼(flying geese)’ 통합구조를 압도하는 경제위기 이후의 중국중심적 ‘대나무밭(bamboo capitalism)’ 통합구조가 부상한다(Li 2007). 지문화적으로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시장경제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중산계층의 소비주의적 생활문화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확산된다(Chua 2004; Shiraishi 2006; Kharas et al. 2010).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는 모두 미래지향적 기획이므로 2015년 아세안공동체의 출범도 ‘종착역’이 아니라 ‘이정표’로 평가된다(Das et al. 2013: 13).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그 상호관계의 현실적 양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보다 그 전향적 상상에 관한 이론적 성찰에 집중된다. 이 연구의 접근시각은 지역주의의 중심적 동인(독립변수)으로서 강조되는 현실주의(realism)의 정치권력, 자유주의(liberalism)의 경제이익,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정체의식 등 물질과 관념의 상호작용과 아울러 구조와 주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중용적(moderate, middle-ground) 구성주의’에 기초한다(Belt 2003; Adler 2005). 그에 따라 지역주의의 제도적 성과(종속변수)로서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는 ‘일원적 확장론’, ‘이원적 상생론’, ‘다원적 경쟁론’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지역화에 따른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경제구조를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정치과정을 통하여 ‘구성’된다는 결론이 제출될 것이다.

II. 지역주의의 접근시각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하여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이론적 접근시각에 따라 비관론에서 낙관론까지 다양한 경향이 엇갈린다. 일견 현실주의는 비관적이고 자유주의와 구성주의는 낙관적이다. 그러나 세 접근시각에는 비관적 측면과 낙관적 측면이 모두 내재한다.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의 안정과 권력이동의 혼란, 자유주의는 상호의존의 심화와 상호갈등의 악화, 구성주의는 문화접변의 보편성과 문화전통의 특수성을 각각 낙관론과 비관론의 심증

으로 제시한다(Friedberg 2005; Brzezinski et al. 2005; 蒲曉宇 2012; 閻學通 2013). 그러므로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는 현실적 양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보다 이론적 시각에 대한 심층적 성찰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홉스(Hobbes)문화’의 현실주의, ‘로크(Locke)문화’의 자유주의, ‘칸트(Kant)문화’의 구성주의 등 국제관계의 이론적 접근시각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Wendt 1999: 257-312).

아세안공동체는 과연 동아시아공동체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두 공동체의 상호관계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주목하는 시각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상향적·자발적으로 전개되는 경제적 지역화든 하향적·전략적으로 추진되는 정치적 지역주의든 모두 역내적 조건과 역외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질서의 형성과 재편을 추동한다(Katzenstein 2006). 하나의 무정부적(anarchic) 세계에서도 시간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역질서가 가능하다. 동아시아의 경우 역사적으로 중국중심적 중화질서, 서구중심적 식민질서, 일본중심적 ‘대화(大和, やまと)질서’, 미소(美蘇)중심적 냉전질서 등을 통하여 동남아와 동북아가 긴밀하게 연계된다. 그러나 단극구조(중화질서, ‘대화질서’), 양극구조(냉전질서), 다극구조(식민질서)를 막론하고 주로 모두 물질적--군사적·경제적--조건이 압도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이 뚜렷하다.

아세안공동체는 비록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2차대전 이후 유럽의 ‘50년 냉전’과 대조되는 동아시아의 ‘50년 열전’을 고려하면 진정으로 획기적인 역사적 실험이다(박사명, 2013).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자장에서 아세안공동체의 전면적 이탈은 가능하지 않다. 중화질서나 ‘대화질서’와 같이 내생적

이든 식민질서나 냉전질서와 같이 외생적이든 모두 물질적 동인이 압도하던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식민질서의 해체 이후 주권규범의 급속한 사회화로 인하여 물질적 동인과 관념적-문화적·이념적-동인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다(Acharya, 2013). 자율적 주권을 철저히 부정하는 식민질서와 그것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냉전질서에 대한 동아시아의 역사적 기억은 경도(soft-hard)와 밀도(thin-thick)가 높은 EU의 일원주의적 공동체와는 다른 다원주의적 공동체를 요구한다(Adler & Barnett,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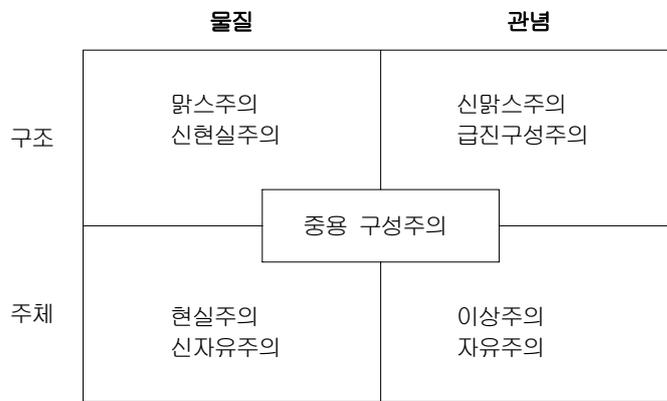
지역주의에 대한 정치적 접근은 위로부터 정치적 지도역량을 부각하는 연방주의(federalism) 및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와 밑으로부터 기능적 상호의존의 정치적 ‘방류효과(spillover)’를 부각하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및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를 포괄한다. 전자는 정치적 세력균형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에 기초하고, 후자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기초한다. 자유무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통화, 경제연합, 정치연합의 연쇄효과에 주목하는 경제적 접근은 후자에 포섭된다(Mattli 1999: 19-40). 그와 달리 역사주의(historicism)와 구성주의는 문화적 정체의식을 강조한다. 한국학계의 경우 이 모든 접근시각에서 동북아에 간히고 닫히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편향이 심각하다.¹⁾ 사실판단에 있어서 동북아에 치우치는 지리적 위상에 따라 자국중심주의가 만연하며, 가치판단에 있어서 ‘주변 4강’에 시달리는 역사적 경험에 따라 대국중심주의가 풍미한다.

지역주의의 다양한 동인 가운데 하나의 요인만 과장하는 환원론적(reductionist) 시각은 복합적 현실에 대한 적실성이 약화된다. 현실주의,

1) 국제관계 연구에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은 지극히 심각한 문제이다.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질서는 가치판단을 요구하고 규범적으로 모색되는 질서는 정확한 사실판단을 요구하지만, 양자를 구분하는 경계는 모호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므로 두 지성적 모색은 모두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다”(Rosenau 1992: 10).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중심적 동인으로서 각각 정치권력, 경제이익, 정체의식에 집착하는 환원론적 경향이 심각하다. 이 연구는 물질적 동인에 집착하는 결정론적(determinist) 편향과 관념적 동인에 집착하는 자원론적(voluntarist) 편향을 모두 거부한다. 다른 한편 이 연구는 구조적 조건과 주체적 실천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전자를 강조하는 신현실주의(neorealism) 및 급진적 구성주의(radical constructivism)와 후자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모두 지양하고 다양한 시각을 적실하게 아우르는 실용적 절충주의를 지지한다(Sil et al. 2010).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물질적 동인과 관념적 동인, 구조적 조건과 주체적 실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중용적 구성주의’가 가장 타당한 접근시각으로서 수용될 것이다(그림 1)

<그림 1> 지역주의의 이론적 접근시각



자료: Katzenstein, 1996: 38; Wendt, 1999: 32; Adler, 2005: 99.

모든 지역의 전략문화에 내재하는 ‘홉스문화’, ‘로크문화’, ‘칸트문화’ 등 세 요소의 상대적 비중은 그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유럽의 ‘칸트적 상호의존’과 중동의 ‘홉스적 현실주의’ 사이에서 동아시아는 지극히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Nye 2005: 131-35, 207-208). 경제적 상호의존의 급속한 확대와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정치’가 기승하는 동아시아의 경우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복합적 접근시각이 필요하다(Liu 2010; Ting 2010; Acharya 2013; Akimoto 2013). 베버(Max Weber)의 성찰과 같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인과해석이나 관념론적 인과해석은 가능하기는 해도 타당하지는 않다”(Weber 1958: 183). 그러므로 미래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관하여 물질과 관념, 구조와 주체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포괄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중용적 구성주의’ 시각이 가장 타당하고 적실하다.²⁾

한국외교의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동아시아공동체는 중국적 수사법에 의하면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는 패도(霸道)의 지역질서를 넘어 도덕적 규범에 의거하는 왕도(王道)의 지역질서를 지향한다(閻學通 2013). 동아시아의 모든 역사적 지역질서에는 패도의 그늘이 다양한 농도로 투영된다. 내생적 지역질서인 중화질서의 조공책봉체제와 ‘대화질서’의 ‘대동아공영권’은 단극적이며, 외생적 지역질서인 식민질서의 제국공조체제와 냉전질서의 지역분단체제는 각각 다극적이고 양극적이다. 그와 같이 동아시아의 모든 역사적 지역질서는 지극히 불평등한 위계구조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구질서는 이미 해체되고 신질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동아시아의 전환적 국면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 모두 대내적으로 다원적·참여적이고 대외적으로 개방적·자율적인 공동체형 지역질서의 모색이 요청되는 새로운 역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張小明 2011).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는 동아시아공동체의

2) ‘중용적 구성주의’는 유럽통합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와 주체, 물질과 관념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시각을 주체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종합하는 ‘전략적 구성주의’와도 유사하다(조홍식 2014).

ASEAN+3(APT, ASEAN Plus Three) 중심론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중심론으로 양분되고, 후자는 짐짓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된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적 회의주의’와 ‘구성주의적 낭만주의’가 대립한다(Kawasaki 2006; 寺田貴 2013). 지역적 정체 의식을 강조하는 구성주의는 아세안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협력의 확대를 모색한다. ‘절대이익(absolute gains)’의 정합(positive-sum)게임과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미국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상대이익(relative gains)’의 영합(zero-sum) 게임과 세력균형을 강조하는 현실주의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여 미국 등 역외세력이 참여하는 중첩적 협력기제의 다원적 경쟁을 선호한다. 이 연구는 구성주의 중심적 ‘일원적 확장론,’ 자유주의 중심적 ‘이원적 상생론,’ 현실주의 중심적 ‘다원적 경쟁론’을 구분하고, 그 절충적 복합의 양태를 구명할 것이다.

Ⅲ. 아세안공동체의 동향

1967년 자본진영 5국의 ASEAN이 출범한다. 반도권에서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고 군도권에서 말레이시아에 관한 정치갈등이 고조되는 지역위기에 직면하여 태국이 그 산파를 자임한다. 그 역사적 계기는 식민세력의 ‘권력공백’을 대체하여 각국의 정치안보와 지역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는 지정학적 동인, 유럽과 같이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각국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공동번영을 촉진한다는 지경학적 동인, 식민세력의 ‘분할지배’에 따라 약화되는 각국의 정체 의식과 지역의 연대 의식을 강화한다는 지문화적 동인을 포괄한다(ASEAN 1967; Thanat 1992; Lee 2000, 329-30).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동인은 냉전질서의 해체 이후 정치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 등

지역협력의 진전에 따라 2003년 아세안공동체를 추동한다(ASEAN 2003). 2007년 ASEAN은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부상에 직면하여 “지역기제에 대한 ASEAN의 중심성과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세안공동체의 출범을 2020에서 2015년으로 앞당긴다(ASEAN 2007a).

아세안공동체는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등 3축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금융,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과도 기능적으로 조응한다. 그러나 ASEAN에 대한 평가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접근시각의 편향이 다양하다. 그것은 현실주의의 경우 단지 기만적 허상에 그치는 ‘모방적(imitation) 공동체’이고(Jones et al. 2003), 자유주의의 경우 아직 간접적 영향에 머무는 ‘연성적(soft) 공동체’이며(Emmerson 2005), 구성주의의 경우 이미 직접적 효과를 미치는 ‘초보적(nascent) 공동체’이다(Acharya 2000: 114-15). 그러나 ‘유럽연합’을 향한 1952년 탄강공동체, 1957년 경제공동체, 1967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를 거쳐 1993년 출범하는 EU의 경험을 기준으로 ‘아세안연합(ASEAN Union)’을 궁극적 목표로 제안하는 현장자문그룹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은 2015년 아세안공동체를 평가하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ASEAN 2006: 15).

정치적 권력배분의 구조적 조건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제도적 효과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물질적 동인을 강조하는 반면 관념적 동인을 강조하는 구성주의는 문화적 정체의식의 동향에 주목하므로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전망도 다양하다. 개별적으로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가 모두 중심적 시각과 보완적 시각의 절충적 복합을 반영한다.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아세안공동체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등 세 이론적 접근 시각이 다양하게 절충되는 복합적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지역

통합'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의 경우 자유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현실주의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이 결합된다.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정치안보공동체의 경우 현실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이 결합된다. 지역연대를 모색하는 사회문화공동체의 경우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이 결합된다.³⁾

1. 경제공동체

2002년 싱가포르가 제안하는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2003년 아세안공동체의 주축(main pillar)으로 설정되며, 경제금융부문의 전면적 '지역통합'을 지향한다(Severino 2006: 342-55). 그것은 동남아 전역을 상품, 용역, 자본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시장 및 생산기지로 통합함으로써 경제발전의 효율성과 사회발전의 형평성이 모두 실현되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재편한다는 목적을 제시한다(ASEAN 2003). 그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아세안공동체는 경제적 통합에서 기능적 통합을 거쳐 제도적 통합으로 나아간다는 기능주의적 전략을 수용한다(Soesastro 2006: 216). 그 점에 있어서 경제공동체의 다양한 프로젝트는 기능주의적 전략의 모태로서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라 세계화와 지역화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접근시각을 중심으로 현실주의적 접근시각과 구성주의적 접근시각을 복합적으로 절충한다(Ikenberry 2009).

3) 아세안공동체 기획에서 드러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세 시각의 절충적 복합은 전반적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의 지나친 제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정표'이지 '중착역'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5년 이후 아세안공동체의 진전에 따라 자유주의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의 지속적 강화가 요구된다.

상품, 용역, 자본의 역내 자유이동을 위한 경제통합은 경제성장의 기본적 목표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반하는 제도개선과 정치개혁의 부수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적 효과는 미국이 단독으로 주재하던 세계질서의 패권 구조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수의 권력중심과 경쟁하는 다극구조로 재편되어 가는 시대에 동남아의 지정학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현 총리의 시각에 의하면, “단일시장은 성장, 영향, 기회를 수반한다”(Najib 2013). 중국경제와 인도경제가 급속하게 부상하는 역사적 국면에서 동남아 군소국들의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통한 집단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와 같이 경제통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있다는 동남아 각국의 기대가 경제공동체에 대한 지역적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유주의적 시각은 현실주의적 시각의 다각적 제약에 부딪힌다. 경제공동체는 단일시장, 단일생산기지, 대외경쟁능력, 지역 균형발전, 세계경제편입 등 4개의 중심적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많은 예외품목, 특혜관세의 낮은 이용비율, 생산기지의 외국기업 주도, 개발격차 해소의 부진, 노동이동의 심한 제약, 금융통합의 동아시아 주도 등 각종 제약이 심각하다(박변순 외 2012). 그것은 국가별 주권이나 국가간 세력관계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의 반영을 실증한다.⁴⁾ 사실 그러한 문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각종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하게 제기된다.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유보되는 ‘민감한’ 예외적 품목의 급증은 물론, 일부 국가의 참여를 유보하거나 일부 국가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ASEAN minus X’ 또는

4)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가 모두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을 전제하지만, 그것을 폐쇄적으로 절대화하는 현실주의적 경향과 개방적으로 상대화하는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는 차이가 크다.

‘Two plus X’ 등 예외적 방식이 모두 현실주의적 시각의 개입을 반영한다(Severino 2006: 353; Soesastro 2006; Jones et al. 2007: 176).⁵⁾

그러한 현상에는 동남아의 기본적 지역규범으로 작용하는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전원합의 등 ‘아세안방식(ASEAN Way)과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이 나뉠대로 지역적 정체 의식으로까지 심화되는 역설적 경향도 존재한다. 그와 같은 지역규범으로 인한 느슨한 지역연대가 오히려 동북아 3국을 비롯하여 인도, 호주, 미국 등 역외국가에 대한 ASEAN의 조정역할과 가교역할에 기여하기도 한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역량과 그에 대한 동아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의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조건의 현실적 제약을 외면하는 지나치게 ‘낭만적’인 구성주의적 전략은 현실주의적·자유주의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구성주의적 시각에 대한 우려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미국의 현재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뉠대로 ‘합리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2. 정치안보공동체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지를 향한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경제공동체와 달리 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는 각국의 주권에 대한 집착에 따라 그 목표가 ‘지역협력’으로 제한된다(Sukma 2003; Severino 2006: 355-68; Sukma 2009a). 그 지표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인권 등 보편적 가치규범을 거

5) 한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자유화 조치 속에서 국익을 지키려는 장치이기보다 오히려 국익을 우선시하여 생기는 경제협력과 자유화의 지연 관행을 개선”하는 간접적·장기적 효과가 예상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적·단기적 의도는 분명히 국가이익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의 제약을 반영한다.

양하는 정치발전과 갈등예방, 신뢰구축, 예방외교, 평화적 분쟁해결을 통한 전통안보(traditional security)와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를 아우르는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가 제시되지만(ASEAN 2009a), 독립, 주권, 평등, 영토, 내정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은 국제주의적 접근을 엄격하게 제약한다(ASEAN 2011). 아세안 공동체 3축의 ‘상호보강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방위조약과 군사동맹을 배제하고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표방하는 정치안보공동체는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는 명분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를 노정한다(ASEAN 2003; Jones et al. 2007: 179).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국제관계의 무정부상태가 초래하는 영합게임은 최소한 생존을 확보하고 최대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내적 자력구제(self-help)와 대외적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요구한다. 경제발전과 군비증강을 통한 ‘내부균형(internal balancing)’은 전자의 전략이며, 동맹과 연합을 통한 ‘외부균형(external balancing)’은 후자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지역주의에 비관적인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도 국가안보와 국제지위에 대한 지역주의의 기여는 충분히 인정된다. 사실 EU의 경우 지역통합의 최고 주도자는 강대국(프랑스, 독일, 영국)인 반면 그 최대 수혜자는 약소국이다(Møller 2008: 19-21; Camroux 2010). 그러나 동남아의 경우 민주화 이후 기본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규범을 확산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크게 미흡하다(Sukma 2009a). 주권과 다양성이 인권과 보편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정치안보공동체에는 나름대로 ‘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을 부각하는 자유주의적 시각도 투영된다(Keohane et al. 1977). ‘포괄안보’에 대한 강조에는 전통안보 협력을 추동하는 비전통안보 협력의 ‘방류효과(spillover)’에 대한 기대도 내재한다. 그러나 경제통합이 정치협력을 고무하는 ‘방류효과’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정치갈등이 경제갈등을 부추기는 ‘역류효과(spillback)’로 반전되는 현상이 상존한다(周方銀 2011: 32, 157). 현실주의적 시각의 세력균형이 지배적 전략문화로 사회화되거나 자유주의적 시각의 상호의존이 대중적 가치규범으로 사회화되는 경우 그것은 강력한 구성주의적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실주의적 정치문화와 민족주의적 경제문화는 지역주의를 제약하고, 자유주의적 정치문화와 국제주의적 경제문화는 지역주의를 고무한다. 그와 같이 구성주의적 시각에서도 정치안보공동체의 진전과 부진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3. 사회문화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는 동남아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을 목표로 제시한다. 그것은 다양성을 거부하는 일원주의적 통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수용하는 다원주의적 통일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의 통일성과 동남아의 다양성을 대조하는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천명할 만큼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부각된다. 그러므로 유럽의 정체의식은 20세기 후반에 가속되는 지역통합의 원인이며 결과라는 역동적 시각이 더욱 타당하다. 1973년 EC 9국은 유럽의 정체의식과 관련하여 “과거의 적대를 넘어 문명의 생존을 확보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체의식의 기본요소”로서 각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초월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정의, 인권존중 등 가치규범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정체의식이 이익을 위한 경제통합과 권력을 위한 정치통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Copenhagen 1973).

장기적 식민지배로 인하여 근대적 국가형성을 위한 국민통합이

지연되는 동남아의 경우, 지리적 국경의 확정과 정치적 주권의 확보가 자동적으로 국민통합을 초래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동북아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각되는 동남아의 경우 식민국가를 국민국가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국가주권과 대내적 국민통합은 국가형성의 ‘절대주의적’ 필요조건으로 인식된다. 동북아의 경우 일본제국의 군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여전히 지역적 정체의식의 형성을 저해한다. 그러나 동남아의 경우 그러한 역사적 기억의 획기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식민주의의 역사적 유산이 여전히 지역적 정체의식의 형성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아세안공동체의 진전에 있어서 사회문화 부문의 지역협력은 경제공동체와 정치안보공동체의 진전에도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2003년 필리핀의 제안으로 기획되는 사회문화공동체는 지역적 정체의식과 상호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인간교류, 국민교육, 대중매체 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접변을 모색한다. 그러한 정체의식과 상호이해는 정치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에도 긴요한 조건으로 인식된다(Severino 2006: 368-71). 한편 아세안공동체의 실질적 성과가 민중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구현되는 경우에만 지역적 정체의식과 연대의식이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상부상조(caring and sharing)’의 ‘민중중심적·사회책임적 공동체’를 위한 인간개발의 증진, 사회복지의 확충, 사회정의의 구현, 빈부격차의 완화 등 정책목표가 제시된다(ASEAN 2009b). 그러나 사회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와 정치안보공동체의 각종 프로젝트에서 누락되는 사업들의 나열에 급급하며, 지역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대중을 이룬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Severino 2006: 369).

전반적으로 동남아 각국에서 ASEAN과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사

회적 인지수준은 여전히 저조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3국의 도시주민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공동체에 대한 인지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전망수준은 저조하며, 교육문제, 경제문제, 대외의존, 개발격차, 정치체제 등이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Moorthy et al. 2012). 10국 수도권의 주민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ASEAN의 명칭에 대한 인지수준 81%에도 불구하고 76%가 ASEAN에 관한 기본인식을 결여되고, 지역통합의 경제적·정치적 효과에 대체로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고용위협, 경쟁심화, 개발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ASEAN 2013). 최근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 각지의 종족갈등과 종교분쟁은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국가형성을 위한 현실주의적 시각의 하향적 국민통합전략은 지역통합을 위한 자유주의적 시각의 상향적 국민통합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IV.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유기적 상호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적 전망에 있어서 양자의 상호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양자는 모두 아직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대상이므로 그 현실적 양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Jones et al. 2007). 그러나 그 상호관계는 필연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그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우선하는 과제이다. 아세안공동체와 같이 동아시아공동체도 국가형성단계의 ‘절대주의 주권’, 지역협력단계의 ‘상호의존 주권’, 지역통합단계의 ‘공동관리(pooling) 주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단계

에서 단기적으로는 ASEAN의 ‘중심성(centrality)’--‘중심역할’ 및 ‘추진동력’--이 견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낙관적 시각과 비관적 시각이 착종한다(Ho 2012).

낙관적 시각에서는 대외적 국제주의적 상호의존의 심화, 대내적 지역주의적 정체의식의 심화. 비관적 시각에서는 대외적인 대국주의적 권력정치의 강화와 대내적인 지역주의적 정체의식의 약화. 대외적으로 지역주의의 지리적 외연이 확대되고 강대국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ASEAN의 ‘중심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Kavi 2011). 대내적으로 ASEAN의 분열과 ‘양극화’는 동아시아의 가열되는 대국경쟁은 ASEAN의 ‘주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ASEAN에는 “통일성 없이 중심성 없다”(Sukma 2012). 그러므로 ASEAN의 ‘중심성’이 형식적 중심(中心)--‘운전석(driver's seat)’--을 넘어 실질적 중심(重心)--‘추진동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합의 가속과 정체의식의 심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다시 동북아나 역외 강대국에 앞서 동남아 각국이 ‘절대주의적 주권’에서 ‘상호의존적 주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oh 2006).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미래에 관한 역내의 이론적 논쟁은 중국 부상의 영향을 부각하는 구성주의적 ‘동아세기(東亞世紀)’론, 미국 위상의 지속을 전망하는 자유주의적 ‘헤게모니(hegemony)’론, 중미(中美)경쟁의 악화를 예고하는 현실주의적 ‘권력이동’론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Goh 2010).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한 접근시각을 통해서는 지극히 복잡한 절충주의적 경향이 온전히 파악될 수 없으므로 동아시아의 각종 지역주의 기획에 내재하는 이론적 절충의 복합적 양태를 조명하는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가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을 절충하는 ‘일원적 확장론,’ 자유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현실주의적 시각과 구성

주의적 시각을 절충하는 ‘이원적 상생론,’ 현실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을 절충하는 ‘다원적 경쟁론’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일원적 확장론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일원적 확장론은 가장 조밀한 아세안공동체가 동아시아공동체의 중심적 통합기제를 구성하고, APT가 매우 느슨한 중간적 협력기제를 구성하며, EAS는 가장 느슨한 주변적 협력기제를 구성하는 동심원적 상호관계의 경우에만 성립된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외연이 ‘동아시아’를 벗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내포가 아세안공동체에 집중됨에 따라 동아시아적 정체 의식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공동체는 상당히 느슨한 전략적 대화포럼(forum)에 불과한 EAS가 아니라 아세안공동체와의 시너지(synergy)효과가 EAS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APT에 기초하게 된다(Anwar 2009; Anwar 2014). 그와 같이 지역통합의 밀도가 동남아,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단계적으로 약화되는 일원적 확장론은 동아시아공동체를 비롯한 각종 협력기제에 대한 아세안공동체의 ‘중심성’, ‘중심역할’, ‘운전석’, ‘추진동력’, ‘중심차량(the main vehicle)’ 등으로 표현된다.

ASEAN 사무국이 자리하는 인도네시아의 시각은 아세안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적으로 확대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일원적 확장론으로 나타나며, 아세안공동체의 실현이 우선적 과제로 설정된다(Anwar 2009; Anwar 2014).⁶⁾ 그러한 전략적 구도에서 아세안공동체

6) 물론 ASEAN의 모든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패권에 취약한 APT보다 세력균형에 유리한 EAS를 선호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가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며, 동아시아공동체는 주변적 위상에 국한된다. 1990년대 초반 지역협력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을 통하여 환태평양으로 견인하는 세력과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East Asian Economic Group)을 통하여 동아시아로 견인하는 세력이 충돌한다. 말레이시아가 대표하는 동아시아적 정체 의식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다시 APT를 통하여 표출된다. 그것은 정치권력과 경제이익의 물질적 동인을 압도하는 정체 의식의 관념적 동인이 부각되는 역사적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한 말레이시아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정체 의식은 ASEAN에 집중된다.

1967년 이후 30년 동안 ASEAN에 대한 수하르토(Suharto)의 지도적 역할은 인도네시아 정체 의식의 중요한 기반이다. 1998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민주정부는 ASEAN의 전통적 정체 의식을 전향적 정체 의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것은 민주적 정치발전과 협력적 포괄 안보를 지향하는 정치안보공동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역할에서 나타난다(Sukma 2003; Yudhoyono 2005).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일원적 확장론은 주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실주의적 정치권력과 자유주의적 경제이익에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그 성급한 추진은 아세안공동체를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아세안공동체의 우선적 추진이 시급하다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러한 인도네시아의 일원적 확장론에는 여전히 정치권력을 고려하는 현실주의적 동인과 경제이익을 고려하는 자유주의적 동인이 보완적으로 개입한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아세안공동체는 동남아의 중심국가로서 인도네시아의 지도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부

(Sukma 2009b: 152-54).

상에 대응하여 동남아의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는 ‘내부균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아세안공동체는 안보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고려를 반영하는 반면, 경제이익에 대한 자유주의적 고려는 다른 광역적 협력기체에 투영된다(Anwar 2014). 물론 아세안공동체도 인도네시아의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적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경제위기에서 ASEAN의 대응능력이 심각한 한계를 노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APT에 대한 지지로 선회하여 치앙마이구상(CMI, Chiangmai Initiative)에 합의하고,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그 다자화(CMIM, Chiang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에도 동의한다. 그 밖에도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ASEAN의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등 APT의 각종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Anwar, 2009).

아세안공동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실질적 ‘작업실(workshop)’을 자임한다. 그러나 APT, EAS, ARF(ASEAN Regional Forum), APEC 등 각종 광역적 협력기체의 원심력이 강화되는 경우 아세안공동체는 구심력이 약화되어 형식적 ‘휴게실(talkshop)’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APT 10주년의 ‘제2차 동아시아 협력선언’은 ASEAN을 중심으로 APT가 첫째 외곽을 형성하고 EAS가 둘째 외곽을 형성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동심원적 구조를 시사하므로(ASEAN 2007c),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아세안공동체의 ‘중심성’은 그 구심력의 강화와 동시에 원심력의 약화를 요구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APT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장기적 목표를 향한 중심차량이며, ASEAN은 그 추진동력”이라는 부분이 각종 문건을 통하여 거듭 확인된다. APT와 다른 광역적 협력기체의 관계는 “APT와 EAS, ARF, APEC, ASEM 등 각종 지역포럼의 상호보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설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ASEAN의 각종 문건에서 APT는 동아시아

아공동체를 향한 ‘중심차량의 하나(a main vehicle)’로 격하되고, EAS의 위상이 APT와 대등하게 격상된다(ASEAN 2012b; ASEAN 2013a). APT와 EAS의 위상을 둘러싸고 ASEAN의 내부적 균열도 노정된다. 동아시아공동체의 중심적 기체로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한국과 중국의 선호와 같이 APT를 지지하는 반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일본의 선호와 같이 EAS를 지지한다(Malik 2005; Kim 2011). 그러한 분열이 악화되는 경우 동아시아공동체의 실질적 중심이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러시아의 대국주의에 민감하게 노출되는 EAS 등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각종 광역적 협력기체의 원심력이 아세안공동체의 구심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의존도는 유럽과 북미의 중간인 반면 ASEAN의 역내 무역의존도는 25% 미만에서 정체하는 현상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물증의 하나이다(ADB 2014).

동남아와 동북아 사이 물질적 역량의 현격한 격차는 관념적 역량의 현저한 격차로 반전된다. 동북아 3국의 상호갈등과 대조적으로 그 3국에 대한 동남아의 신뢰는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다. 동남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7국에 대한 최근 국제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의 91%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한다(日本外務省 外 2014). 구체적으로 ASEAN에 있어서 “현재의 중요한 협력대상”은 일본 65%, 중국 48%, 미국 47%, 한국 37% 등이며, “미래의 중요한 협력대상”은 일본 60%, 중국 43%, 미국 40%, 한국 35% 등이다(Kyodo 2014).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된 미얀마나 중국과의 혈연관계가 긴밀한 싱가포르를 제외한 5국의 경우 일본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다(표 1). 일본, 중국, 미국에 대한 시각은 호주, 인도, 러시아에 대한 시각보다 양호하므로 개방적 지역주의의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 현재/미래의 중요한 협력대상 (% , 2014년)

동남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36/38	52/48	70/66	43/35	19/21	29/31	18/22
말레이시아	44/43	63/56	65/62	36/30	25/27	37/36	13/21
미얀마	20/20	40/32	44/49	48/41	16/16	11/12	9/ 4
필리핀	54/43	32/25	76/64	65/56	18/21	45/46	14/24
싱가포르	43/34	60/51	50/39	42/36	31/35	38/36	10/17
태국	29/25	60/56	74/68	38/31	22/21	19/17	11/12
베트남	34/39	32/30	77/71	54/51	24/27	34/31	44/38

자료: 日本外務省 外 2014.

그와 같이 동북아의 상호갈등과 동남아의 상호신뢰가 엇갈리는 동아시아의 현실적 양상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아세안공동체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운전석’과 ‘추진동력’을 담당하는 일원적 확장론의 적실성이 가장 높을 가능성을 지지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세안공동체의 취약한 물질적 역량 때문에 동북아 3국관계와 미중관계의 동향에 따라서는 그 원심력이 구심력을 압도하게 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자유주의적 동인(상호의존)과 구성주의적 동인(정체의식)이 현저하게 강화되지 않을 경우 잠재하는 현실주의적 동인(정치권력)이 강력하게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질적 역량(현실주의, 자유주의)의 배분구조가 관념적 역량(구성주의)의 배분구조와 지나치게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 질서도 장기적으로 현실적 안정성과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이원적 상생론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이원적 상생론은 동아시아공

동체의 중심적 기제가 APT로 기울거나 APT와 EAS가 역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⁷⁾ 그것은 동아시아의 외연이 ‘지리적’ 동아시아를 지나치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능적’ 동아시아와의 ‘역동적 균형’을 통하여 그 내포가 ‘공동체’ 수준으로 심화되고 나름대로 정체 의식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EAS 출범 당시 APT는 아세안공동체의 실현과 동아시아공동체의 건설에 기여하는 한편, EAS는 “지역기제의 필수적 일부”로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서 “APT와 함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ASEAN 2005a; ASEAN 2005b). 2007년 APT 10주년 공동선언도 APT를 동아시아공동체의 ‘중심차량’이고 ASEAN은 그 ‘추진동력’임을 확인한다(ASEAN 2007c). 그러나 2012년 APT 15주년 공동성명 이후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APT의 역할은 ‘중심차량의 하나(a main vehicle)’로 격하된다(ASEAN 2012b; ASEAN 2013a; 신윤환 2014: 338-40).

그와 같이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이원적 상생론은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APT와 EAS의 상호의존을 요구한다. 당초 APT 중심적 동아시아공동체를 선호하던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ASEAN 중심론과 일본 및 싱가포르의 EAS 확대론에 직면하여 형식적으로는 EAS 확대론을 수용하는 대신 실질적으로는 ASEAN과 APT의 평행적 발전을 지향하는 이원적 상생론으로 전환한다.⁸⁾ 싱가포르는 인도를 제안하고,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안한다. 그에 따라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이원적 상생론은 가열되는 중일경쟁으로 인하여 APT 중심적 단층구

7) 2005년 EAS 출범 이전의 APT 중심적 동아시아공동체와 아세안공동체의 이원적 상생론은 말레이시아에 의하여 전형적으로 표현된다. “ASEAN은 몇 가지 의미에서 규모가 너무 작다 ...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는 공동으로 행동하고 공동으로 전진함으로써 공동으로 번영해야 한다”(Noordin 2004: 2).

8)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패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을 배제하는 ‘폐쇄적’ APT보다 미국이 동참하는 ‘개방적’ EAS를 선호하는 시각도 강력하게 제기된다(Anwar 2005).

조에서 APT-EAS 균형적 중층구조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수용하게 된다(Soesastro 2006: 231; Wanandi 2009: 29-32). 한편 ASEAN 사무국과 분리되는 별도의 APT 사무국을 유치하고자 하던 말레이시아의 시도는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이원적 상생론을 예고하는 단서로도 해석될 수 있다(Anwar 2009).

중국과 미국의 상호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부상하면서 중국중심적 경제와 미국중심적 안보의 동아시아 ‘이원구조’가 형성된다(周方銀 2011). 2001년 중국은 동남아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자유무역 양자협정을 촉진한다. 미국은 전략적 ‘재균형(rebalancing)’을 통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강화한다.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호주 등에 대한 군사동맹 이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에 대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위상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관건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실 거의 모든 동아시아 국가의 역내무역에서 중국은 일본과 미국을 압도한다(표 2). 그와 같이 급속하게 조성되는 안보와 경제의 ‘이원구조’는 ‘중국위협’에 대응하여 대미동맹을 강화하는 일본의 경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본의 대외무역에 대한 미국의 비중은 1990년 27.5%에서 2010년 12.9%까지 급감하는 반면, 동아시아(중국, 한국, ASEAN)의 비중은 1990년

<표 2>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 무역비중 (% , 1990년-2010년)

국가	한국		중국		일본		ASEAN		ASEAN+3		미국	
	'90	'10	'90	'10	'90	'10	'90	'10	'90	'10	'90	'10
한국	-	-	0.0	21.0	22.0	10.3	7.2	10.9	29.2	42.2	25.6	10.1
중국	0.6	7.0	-	-	14.5	10.0	6.3	9.8	21.4	26.8	10.2	13.0
일본	5.6	6.2	3.5	20.7	-	-	12.1	14.6	21.2	41.5	27.5	12.9
ASEAN	3.2	5.1	2.4	12.2	21.1	11.0	17.0	24.6	43.7	52.9	16.8	9.2
미국	3.7	2.8	2.3	14.6	15.6	5.7	5.2	5.6	26.8	28.7	-	-

자료: ADB 2014.

21.2%에서 2010년 41.5%까지 급증한다.

이원적 상생론은 ‘안보 미국’과 ‘경제 중국’의 ‘이원구조’에 접근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변동을 반영한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급속하게 심화되는 상호의존을 반영하여 APT를 동아시아공동체의 유일한 중심으로 설정한다. 그 공식적 입장에 의하면, APT는 이미 ‘모든 방향’, ‘넓은 영역’, ‘여러 차원’을 포괄하는 동아시아--동남아와 동북아--의 광역적 협력기체로서 그 기본적 과제의 수행에 성공하고 있으므로 아시아의 각종 협력기체 가운데 최고의 기체이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경로’이자 ‘주진지’이다(李克强 2013; 王毅 2013).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을 배제하는 폐쇄적 지역주의를 견제하고 미국을 포섭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견인하기 위한 APT와 EAS의 상호의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일(中日)경쟁과 중미(中美)경쟁에 따라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EAS 원심력의 강화 및 APT 구심력의 약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구심력과 원심력의 역동적 균형이 요청된다(Tay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강조되는 동아시아 정체 의식의 한계는 여전히 심각하다. 예를 들면, 서부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3국의 ‘신뢰흑자’와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신뢰적자’가 극명하게 대조된다(그림 2).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물질적 조건--‘뜨거운 경제’--과 상호불신이 악화되는 관념적 조건--‘차가운 정치’--이 대조되는 ‘동아시아의 역설’은 여전히 지역적 정체 의식을 희석하는 민족적 정체 의식의 압도적 비중을 실증한다(Jager 2007; Croissant et al. 2009). 그것은 중국패권에 대한 세력균형이 요구하는 전략적 한일(韓日)동맹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현실주의적 시각과 중국경제에 대한 상호의존이 수반하는 정치적 ‘방류효과’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의 이론적 예측을 모두 철저히 부정한다. 그러한 ‘동아시아의 역설’은 식민시대와 냉전시대

의 역사적 기억에 여전히 무겁게 짓눌리는 관념적 조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의 적실성을 실증한다.

<그림 2> 동아시아의 ‘신뢰적자’와 유럽연합의 ‘신뢰흑자’ (% , 2013년)

한국		영국	
+16 ↗	-38 ↘	+29 ↗	+66 ↘
-9 ↘	-46 ↗	+40 ↘	+16 ↗
-57		+27	
중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59		+70	

자료: BBC 2013.

유럽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성과가 실증하는 바와 같이 상호신뢰되는 지역통합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결과이기도 하다(Møller 2008: 445-65). 그 점에 있어서 동북아 3국에 대한 동남아 10국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그것은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장기적 ‘경제외교’와 중국의 새로운 ‘미소외교’가 거둔 성과이다. 그러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 관한 갈등으로 인하여 지속되는 동북아 3국의 만성적 ‘신뢰적자’는 일본에 대한 동남아의 압도적 ‘신뢰흑자’를 철저히 비웃는다(Anwar 2005: 16).⁹⁾ 이와 같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관념적 격차는 광역적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획기적 진전을 제약하는 구성주의적 조건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정체의식의 격차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위한 동남아의 효과적 조정역할이 필요하고 가능하게 되는 적극적 조건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의존적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이원적 상생론의 구성주의적 기초인 것이다.

그와 같이 지극히 유동적인 지문화적 조건에서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적 기제를 둘러싼 APT 중심적 중국과 EAS 중심적 일본의 경쟁

9) 일본에 대한 한국(-55)과 중국(-86)의 ‘신뢰적자’와 필리핀(+60), 인도네시아(+67), 말레이시아(+74)의 ‘신뢰흑자’는 극명하게 대조된다(Pew 2013).

은 동남아의 내부적 분열을 조장한다. 일본의 시각은 미국의 이해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추진에 수반하는 두 가지 위험이 예상된다.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너무 많은 과제가 너무 빠르게 추진되는 경우, 동아시아공동체의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너무 적은 과제가 너무 느리게 추진되는 경우, 역사분쟁, 영토분쟁, 패권경쟁, 개발격차 등 내부균열이 심각한 현실에서 동아시아공동체는 APEC와 같이 약화되고 망각될 가능성이 크다 (Tay 2005: 21-24). 그러므로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이원적 상생론은 동아시아공동체가 APT로 기울거나 APT와 EAS의 역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다원적 경쟁론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이원적 상생론은 동아시아공동체의 실질적 중심이 APT와 EAS의 균형을 넘어 EAS로 기울수록 다원적 경쟁론으로 변화한다.¹⁰⁾ 그것은 동아시아의 외연이 ‘지리적’ 동아시아를 이탈하여 ‘기능적’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반면 그 내포는 ‘공동체’ 수준에 미달하는 ‘네트워크(network)’ 수준으로 약화되면서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의식이 희석되기 때문이다(최태욱 2014: 215-21). 다원적 경쟁론은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소극적이다. 이원적 상생론을 견지하는 2007년

10) 일본의 경우 2010년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수상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 동아시아의 외연이 당초 동북아에서 점차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되고, 그 후임 노다(野田佳彦) 수상이 결국 2012년 ‘태평양현장’까지 제안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전형적 사례이다(産經新聞 2012/01/18).

APT 10주년 공동성명은 APT, EAS, ARF, APEC, ASEM 등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상호보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지지함으로써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각종 협력기제의 다원적 경쟁론에 관한 단초를 제공한다(ASEAN 2007b; ASEAN 2007c). 아세안공동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중심”이지만, APT와 EAS는 “부상하는 지역기제의 중요한 일부”로 격하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APT와 EAS의 기능협력 및 안보협력 분업구조에 관한 단초의 예상을 뛰어넘어 EAS도 안보협력의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기능협력을 급속하게 확대한다(신윤환, 2014: 341-51). “광범한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현안에 관한 대화와 협력의 포럼”으로서 EAS는 전략적 의제 이외에도 환경·에너지, 교육, 금융, 건강·전염병, 자연재해, ASEAN 연계성 등 6개의 우선적 영역에 걸친 기능협력이 강조된다(ASEAN 2010). 그와 같이 ‘전략적’ 대화의 의제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를 포괄하는 안보(warfare)에서 복지(welfare)까지 광범한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그에 따라 EAS는 ASEAN+1, APT, ADMM+(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RF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지역기제의 ‘필수적 일부’ 또는 ‘중요한 요소’로 격상된다(ASEAN 2011; ASEAN 2013b). APT와 EAS가 그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구상도 없는 국면에서 ‘협력기제의 인플레이션(inflation)’에 빠져드는 것이다.

사실 상호의존의 증대는 상호갈등의 증폭을 수반할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의 상호관계를 주로 정합게임으로 기대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이원적 상생론으로 기우는 반면, 그것을 주로 영합게임으로 전망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은 다원적 경쟁론으로 기운다. 현실주의적 전략문화를 대표하는 싱가포르의 고츠퉁(Goh Chok Tong)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제도적 구조를 APT, EAS, ARF, APC(Asia-Pacific Community), APEC 등 “유연하고 중첩하는 다수의 네트워크”로 구

상하면서 세계화의 복합적 현실에 부응하는 ‘역동적 지리학’을 주문한다. 중일경쟁과 중인(中印)경쟁에 따른 동아시아의 분열과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세안공동체의 획기적 강화와 미국의 지속적 개입이다. 다양한 지리적 외연과 기능적 내포를 추구하는 동아시아의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의 참여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덕, 피, 돈’으로 만든 작품이나 다름없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배제는 가능하지 않다.

세계화는 물리적 지리학과 정치적 지리학 사이 단절의 지속적 확대를 의미한다. 경제적 공간은 더 이상 정치적 경계 또는 심지어 대륙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은 우리가 정치적 연계, 경제적 연계, 사회적 연계 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 새로운 현실은 관념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 관념의 변화가 동아시아 르네상스(Renaissance)의 열쇠이다(Goh 2006).

‘물리적 지리학’ 아닌 ‘정치적 지리학’에서 동아시아는 미국이 가담하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다원적 경쟁을 요구한다. 그것은 유럽의 각종 지역협력기제와 미국이 참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다원적 경쟁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구조이다(Camroux 2010). 그와 같이 ‘동아시아’를 지리적 범주를 넘어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아우르는 기능적 범주로 파악하는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일부의 시각은 일본의 일부 시각과도 지극히 유사하다(Goh 2005; Marty 2013). “‘동아시아’는 지리적 개념이기보다 기능적 개념이다 ... 그 지리적 범위는 구체적 현안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Evans 2005: 208 재인용). 무엇보다 미국은 안보, 정치, 경제 등 모든 기능적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긴요한 일부이므로 미국이 배제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지리적 외연을 미리 확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원적 경쟁론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강조되는 정치적·군사적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주목되는 경제적·기능적 상호의존을 보완하는 반면(伊藤元重 2010: 7-11),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부각되는 문화적·규범적 정체의식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주도적 정치안보와 중국중심적 경제발전의 ‘이원구조’로 재편되어 가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변동을 장기적으로 냉정하게 관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급하게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적 기제를 선택하는 전략은 비합리적이다. ‘지리적’ 동아시아(ASEAN, APT)의 바깥에서 중국의 경성권력(hard power) 및 연성권력(soft power)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유일한 중심은 미국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참여하는 EAS, ARF, APC, APEC 등 ‘기능적’ 동아시아의 각종 협력기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은 다양한 지역기구의 장기적 자유경쟁을 통한 궁극적 ‘적자생존’의 대안이다.

아세안공동체의 경우에도 경제통합과 달리 안보협력은 ARF와 같이 지리적 외연이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된다(ASEAN 2003). ARF의 공식적 중심인 아세안공동체는 역외의 실질적 중심에 따라 형성되는 자장의 강력한 원심력에 말려들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식적 중심--‘운전석’--이 ASEAN인 경우에도 그 실질적 중심--‘추진동력’--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획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어떠한 관료적 기제보다 ‘유연하고 중첩하는’ 다수의 다자주의적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ASEAN, APT, EAS, ARF, APEC, ASEM(Asia-Europe Meeting) 등 다양한 제도적 기제--‘다전선(multiple fronts)’ 및 ‘다경

로(multi-tracks)’--에 대한 전면참여와 그에 따른 시행착오의 학습을 요구하는 거시적 대안이 훨씬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는 것이다(Goh 2006; 伊藤元重 2010: 11-12).

그와 같은 ‘다경로’·‘다전선’ 전략은 중국의 APT 중심적 ‘주경로’·‘주진지’ 전략과 대조된다(李克強 2013; 王毅 2013). 그 점에 있어서 중국의 시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말레이시아는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달하는 ASEAN의 경제적 한계를 가장 우려한다(Badawi 2004). 그러한 시각은 ‘지리적’ 동아시아의 정체의식을 고무하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의 민족주의적·지역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다(이재현 2007). 동북아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동남아는 경제위기 이후 동북아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그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APT의 출범 무렵 인도네시아 언론의 한 논평과 같이, “ASEAN은 그 허약한 제도적·지정학적 위상을 고통스럽게 자인하면서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3강--중국, 일본, 한국--을 지역협력의 구조에 포섭하는 경우에만 세계문제에 대한 동아시아의 역할이 훨씬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Ba 2009: 355).

그러한 동남아의 권력동인은 동북아의 권력동인과 효과적으로 조응한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APT는 물질적 역량이 미약한 ASEAN의 ‘중심성’에 대한 동북아의 존중이 아니라 세력권 확장을 위한 중일경쟁의 결과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최소한 자국에 불리한 동향을 견제하고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동향을 견인하기 위한 양국의 패권경쟁을 은폐하는 것이다(Terada 2006; Jones et al. 2007: 181; 김재철 2008: 135-38; 김기석 2008: 178-81).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공동체는 중국패권의 도구에 불과하므로 중국중심적 ‘대륙국가연대’에서 미국중심적 ‘해양국가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타아론(新脫亞論)’ 또는 ‘탈아입미(脫亞入美)’까지 제기된다(渡邊利夫

2008; 西口清勝 2011).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의 중국패권에 대한 경계는 그것이 오히려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중층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국패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능주의적 전략이라는 측면을 간과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天兒慧 2011: 36-38).¹¹⁾

V. 결론

유럽통합의 선구 모네(Jean Monnet)에 의하면,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으며, 제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는다”(Camroux 2010 재인용).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의 역동적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지도와 제도적 장치의 매개역할이 필수적이다. 어떠한 접근시각이든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 경제이익, 정체의식 등 독립변수와 일원적 확장론, 이원적 상생론, 다원적 경쟁론 등 종속변수를 매개하는 주체적 지도역량과 정치의지이다(Laursen 2010: 13-14). 그것이 이 연구에서 ‘지역화’의 객관적 조건에 내재하는 긍정적 계기와 부정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그에 대한 ‘지역주의’의 주체적 대응을 부각하는 ‘중용적 구성주의’의 적실성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인간을 돕는다. 동아시아의 지극히 유동적인 전환국면에서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예단은 지나치게 성급하다.

일본주도적 ‘기러기떼’와 중국중심적 ‘대나무밭’이 중첩하는 경제

11)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동아시아공동체는 지역제도에 중국을 포섭하고, 중일관계의 개선을 지원하며, 중미관계의 악화를 방지하는 등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한다(Wanandi 2005, 323-26).

적 상호의존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상호접변을 통한 정체 의식의 형성은 너무 부진하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정치적 상호갈등의 고조가 엇갈리는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정치협력에 대한 밑으로부터 경제통합의 ‘방류효과’는커녕 위로부터 정치갈등이 경제통합의 반전을 부추기는 ‘역류효과’까지도 우려되는 것이 최근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이다. 그 점에 있어서 ‘역사의 부담’에 여전히 갇혀 있는 동북아 3국은 거기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동남아 10국과 선명하게 대조된다. 지역주의의 물질적 동인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보다 그 관념적 동인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이 가장 긴절하게 요구되는 지역이 오히려 현실주의적 시각이 가장 강력하게 투사되는 동아시아라는 사실은 지극히 역설적이다. 역사적 정체 의식과 역동적 가치규범에 대한 지역적 합의가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략적 관건이다.

문화적 정체 의식을 중시하는 구성주의는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일원적 확장론을 지지한다. 그것은 지역협력의 진전에 따른 동남아 정체 의식의 강화,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지역갈등의 약화에 따른 동북아 정체 의식의 약화, 동남아와 동북아의 상호연대를 저해하는 국가역량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 아세안공동체의 역내통합을 바탕으로 APT, EAS, ARF, APEC 등 역외협력의 동심원적 확대를 추구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주목하는 자유주의는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이원적 상생론을 지지한다. 그것은 경제적·문화적 의존도가 높은 APT와 정치적·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참여하는 EAS의 균형에 기초하는 동아시아공동체와 아세안공동체의 평행적 발전을 모색한다. 정치적 세력균형을 강조하는 현실주의는 다원적 경쟁론을 지지한다. 그것은 사실 공동체형 지역통합보다 APT, EAS, ARF, APEC, APC, ASEM 등 다양한 협력기제의 경쟁에 기초하는 세력균형의 지역질서를 선호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을 고려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한국적 전략에 있어서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통하여 현실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을 절충하는 ‘중용적 구성주의’ 시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한 시각은 다양한 영역의 기능협력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집중도가 높은 APT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수준의 안보협력은 정치적 세력균형의 안정도가 높은 EAS를 중심으로 모색하는 이중적 전략을 요구한다. 물론 APT의 안보협력과 EAS의 기능협력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세안공동체의 ‘중심성’은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APT와 EAS의 역동적 균형에 대한 효과적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필요조건이다. 아세안공동체의 ‘중심성’이 약화되는 경우 경제적 상호의존이든 정치적 세력균형이든 모두 심각한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접근시각과 현실적 대응전략의 절충적 복합이 가능할 것이다(표 3).

<표 3> 국제관계의 접근시각과 동아시아의 통합권역

접근시각	중심적 독립변수	ASEAN	APT(ASEAN+3)	EAS(ASEAN+8)
자유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	+++	++
현실주의	정치적 세력균형	+	++	+++
구성주의	문화적 정체의식	+++	++	+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자장에서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상호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객관적 조건은 중미관계의 동향이다. 그것이 정합게임으로 기울수록 동아시아의 공동체적 정체의식이 강화되는 일원적 확장론 또는 이원적 상생론의 적실성이 커질 것이며, 그것이 영합게임으로 기울수록 동아시아의 공동체적 정체의식이 약화되는 다원적 경쟁론의 적실성이 커질 것이다. 그 궁극적 방향성은 구조적·물질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

는 주체적·관념적 역량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일경쟁과 중미경쟁이 중첩하는 동아시아에 긴요한 것은 아세안공동체의 ‘중심성’과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유럽에서 초국가세력인 EU집행위원회의 전략적 역할을 국가 규모, 경제발전 정도, 국제정치의 동맹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간자-중개자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이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홍식 2014: 91).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지형에서 새로운 지역질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이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모든 접근시각에서 미중관계의 전망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유동적 현실은 세 접근시각의 절충적 복합을 요구한다. 현재 동아시아의 과도적 지역질서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절충적 복합에 있어서 유럽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며, 각 시각의 상대적 비중이 현실적으로 다양할 뿐이다(Alagappa 2003: 72-78). 유럽의 경우 자유주의적 상호의존과 구성주의적 정체의식이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을 압도하는 반면, 동아시아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이 자유주의적 상호의존과 구성주의적 정체의식을 압도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 긴요한 것은 정치적 세력균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와 문화적 정체의식의 심화를 효과적으로 가속하는 이중적 전략이다.

주제어: 아세안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일원적 확장론, 이원적 상생론, 다원적 경쟁론

〈참고문헌〉

- 김기석. 2008. “일본의 동아시아 통합전략.”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 김재철. 2008.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 박번순·김경훈. 2012.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SERI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박사명. 2013. “한국전쟁과 동남아시아.” 『아시아저널』 7: 161-80.
- 신윤환. 2014. “EAS의 발전과 한국의 동아시아 협력전략.”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 동향과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이재현. 2007.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 분석.” 『국제정치논총』 47(1): 121-44.
- 최태욱. 2014.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일본정책의 변화.”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 동향과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조홍식. 2014. “지역통합과 전략적 구성주의.”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 동향과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李克强. 2013. “在第16次東盟與中日韓(10+3)領導人會議上的講話.” 10月11日.
- 閻學通. 2013. 『歷史的慣性』. 北京: 中國出版社.
- 王毅. 2013. “要充分發揮10+3合作作為東亞合作的主渠道作用.” 新華網, 6月30日.
- 張小明. 2011. “東亞共同體建設.” 『世界經濟與政治論壇』 11: 37-47.
- 張鐵軍. 2005. “中國與東亞共同體.” 『太平洋學報』 12: 12-19.
- 周方銀. 2011. “中國崛起, 東亞格局變遷與東亞秩序的發展方向.” 『當

- 代亞太』5: 4-32.
- 蒲曉宇. 2012. “中國與國際秩序的再思考.” 周方銀・高程 編. 『東亞秩序』.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日本外務省・Ipsos Hong Kong. 2014. “ASEAN調査.” 3月31日.
- 西口清勝. 2011. “‘東アジア共同体’か‘APEC共同体’か.” 『立命館經濟學』60(3): 67-89.
- 『産経新聞』. 2012. “野田首相の新外交戦略.” 1月18日.
- 天兒慧. 2011. “アジア太平洋國際關係の新め段階と地域統合の新機軸を求めて.” 『問題と研究』40(3): 27-48.
- 伊藤元重. 2010. 『東アジアの地域連携を強化する』. 東京: 綜合研究開發機構.
- 渡邊利夫. 2008. 『新脱亞論』. 東京: 文藝春秋.
- 寺田貴. 2013. 『東アジアとアジア太平洋』.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 Acharya, Amitav. 2000.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 _____. 2013. "Power Shift or Paradigm Shif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8: 158-73.
- ADB(Asia Development Bank). 2014. "Integration Indicators."
- Adler, Emanuel. 2005. *Communitaria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 _____ and Michael Barnett. eds. 1998.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kimoto, Daisuke. 2013. "A Theoretical Analysis of Japan's Changing Security Identity." *Electronic Journal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13(1): Article 10.
- Alagappa, Muthiah. 2003.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Anwar, Ibrahim. 2005. "Whither East Asia?" Speech at Sasakawa Peace Foundation USA, Washington, DC, December 12.
- Anwar, Dewi Fortuna. 2009. "Vision for an East Asian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the 12th ASEAN Forum,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KISEAS), Seoul, May 15-16.
- _____. 2014. "Indonesia's Foreign Relations." *East Asia Forum*, February 4.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67. "ASEAN Declaration."
- _____. 2003.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 (Bali Concord II)."
- _____. 2005a. "Kuala Lumpur Declaration on East Asian Cooperation."
- _____. 2005b. "Chairman's Statement of the 1st East Asia Summit."
- _____. 2006.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on the ASEAN Charter."
- _____. 2007a. "Chairman's Statement of the 10th ASEAN Plus Three Summit."
- _____. 2007b. "Chairman's Statement of the 2nd East Asia Summit."
- _____. 2007c. "Second Joint Statement on East Asian Cooperation."
- _____. 2009a.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 _____. 2009b.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 _____. 2010. "Chairman's Statement of the East Asia Summit."
- _____. 2011. "Declaration on ASEAN Community in a Global Community of Nations (Bali Concord III)."
- _____. 2012a. "The East Asia Vision Group II (EAVG II) Report."
- _____. 2012b. "ASEAN Plus Three Leaders' Joint Statement on the Commemoration of the 15th Anniversary of the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 _____. 2013a. "Chairman's Statement of the 16th ASEAN Plus Three Summit."
- _____. 2013b. "Chairman's Statement of the 8th East Asia Summit."
- Ba, Alice D. 2009. "Regionalism's Multiple Negotiation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2(3): 345-67.
- Badawi, Abdullah Ahmad. 2004. "Asian Regional Integration." Speech at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Asia. Tokyo, June 3.
-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13. "Country Rating Poll." May 22.
- Belt, Henk Van Den. 2003. "How to Engage with Experimental Practices?" *Journal for General Philosophy of Science* 34(2): 201-19.
- Brzezinski, Zbigniew and John J. Mearsheimer. 2005.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146: 46-50.
- Camroux, David. 2010. "Six European Lessons for an Asian Community." *Nation*, January 5.
- Chua Beng Huat. 2004. "Conceptualizing an East Asian Popular Culture." *Inter-Asia Cultural Studies* 5(2): 200-21.
- Copenhagen European Summit. 1973. "Declaration on European Identity."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2: 118-22.
- Croissant, Aurel and Christoph Trinn. 2009. "Culture, Identity and Conflict in Asia and Southeast Asia." *Asien: The German Journal on Contemporary Asia* 110: 13-43.
- Das, Sanchita Basu, Jayant Menon, Rodolfo Severino, and Omar Lal Shrestha (eds.). 2013.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Emmerson, Donald K. 2005. "Security, Community,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2): 165-185.
- Evans, Paul. 2005. "Between Regionalism and Regionalization." In T. J. Pempel (ed.), *Remapping 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Friedberg, Aaron. 2005.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30(2): 7-45.
- Goh Chok Tong. 2005. "Global City of Opportunity." Keynote Address at the Singapore Conference, London, March 15.
- _____. 2006. "Towards an East Asian Renaissance." Speech at the 4th Asia-Pacific Round Table, Singapore, February 6.
- Goh, Evelyn. 2010. "What the Asian Debate about U.S. Hegemony Tells Us." *PacNet* 39A, September 7.
- Ho, Benjamin. 2012. "ASEAN's Centrality in a Rising Asia." Working Paper No. 249,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ingapore.
- Ikenberry, John. 2009. "Liberal Internationalism 3.0." *Perspectives on Politics* 7(1): 71-87.
- Jager, Sheila Miyoshi. 2007. *The Politics of Identity*.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 Jones, David Martin and Michael .L. R. Smith. 2003. "ASEAN's Imitation Community." *Orbis* 46(1): 93-109.
- _____. 2007. "Constructing Communit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3(1): 165-86.
- Katzenstein, Peter J. 1996.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East Asia." I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Beyond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avi Chongkittavorn. 2011. "Can ASEAN Centrality Be Maintained at East Asia Summit?" *Nation*, November 7.
- Kawasaki, Tsuyoshi. 2006. "Neither Scepticism Nor Romanticism." *Pacific Review* 19(2): 219-37.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Kharas, Homi and Geoffrey Gertz. 2010. "The New Global Middle Class." In Cheng Li (ed.), *China's Emerging Middle Class*. Washington, DC: Brookings.
- Kim Hyung Jong, Lee Poh Ping and Mohammad Raduan Mohammad Ariff. 2011. "East Asian Development and Contrasting Views among ASEAN Member Nations over East Asian Regionalism."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3(3): 387-402.
- Kyodo News. 2014. "91% of Respondents in S.E. Asia Say Japan Is 'Reliable Friend'." April 18.
- Laursen, Finn. ed. 2010.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Farnham, United Kingdom: Ashgate Publishing.
- Lee Kuan Yew. 2000. *From Third World to First*. New York: HarperCollins.
- Li Xing. 2007.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Working Paper No. 3, Center for Comparative Integration Studies, Aalborg University, Denmark.
- Liu, Qianqian. 2010. "China's Rise and Regional Strategy." *Journal of Cambridge Studies* 5(4): 76-92.
- Malik, Mohan. 2005. "The East Asia Summit." *Yale Global*, December.

- Mattli, Walter. 1999.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øller, Jørgen Østrøm. 2008. *European Integration*.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Moorthy, Ravichandran and Guido Benny. 2012. "Is an 'ASEAN Community' Achievable?" *Asian Survey* 52(6): 1043-66.
- Najib Razak. 2013. "Learning from Europe." *Huffington Post*, January 5.
- Noordin Sopiee. 2004. "The Making of an East Asian Community." AT10 Research Conference, Tokyo, February 3-4.
- Nye, Jr., Joseph S. 2005.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5th Ed. New York: Pearson Education.
- Pew Research Center. 2013. "Japanese Public's Mood Rebounding, Abe Highly Popular," July 11.
- Rosenau, James N. 1992.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In James N. Rosenau and Ernst-Otto Czempiel (ed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verino, Rodolf C. 2006. *Southeast Asia in Search of ASEAN Communit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hiraishi, Takashi. 2006. "The Third Wave." I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Beyond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il, Rudra and Peter J. Katzenstein. 2010. "Analytical Eclecticism in the Study of World Politics." *Perspective on Politics* 8(2): 411-31.
- Soesastro, Hadi. 2006.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sian Economic Review* 1: 215-34.
- Sukma, Rizal. 2003. "The Future of ASEAN." Paper Presented at Seminar

- on ASEAN Cooperation, New York, June 3.
- _____. 2009a. "Democracy Building in South East Asi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Stockholm.
- _____. 2009b. "Indonesia'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In Jun Tsunekawa (ed.), *The Rise of China*.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 _____. 2012. "Without Unity, No Centrality." *Jakarta Post*, July 17.
- Tay, Simon S. C. 2005. "An East Asia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Issues & Insights* 5(9): 13-27.
- _____. 2010. *Asia Alone*. Hoboken, New Jersey: Wiley and Sons.
- Terada, Takashi. "Forming an East Asian community." *Japanese Studies* 26(1): 5-17.
- Thanat Khoman. 1992. "ASEAN." K. S. Sandhu et al. (eds.), *The ASEAN Reader*.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ing, Ming Hwa. 2010. "Singapore's Foreign Policy." Doctoral Thesis, Centre for Asian Studies, University of Adelaide, Australia.
- Wanandi, Jusuf. 2005. "Towards an Asian Security-Community." *Asia Europe Journal* 3(3): 323-32.
- _____. 2008. "East Asian Regionalism and Global Governance." In Jusuf Wanandi and Tadashi Yamamoto (eds.), *East Asia at a Crossroads*. Toykyo: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udhoyono, Susilo Bambang. 2005. "On Building the ASEAN Community." Lecture on the Occasion of the 38th Anniversary of the ASEAN, Jakarta, August 8.
- (2014.06.03투고, 2014.07.03심사, 2014.07.08게재확정)

<Abstract>

The ASEAN Community and an East Asian Community

PARK Sa My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theoretical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SEAN Community and an East Asian community envisioned by the East Asia Vision Group (EAVG I) and proposed by the EAVG II to be launched in 2020 as the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It is based on the eclectic perspective of 'middle-ground constructivism', focusing on interaction between material and ideational factors, on one hand, and between static structures and dynamic processes, on the other. Whil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political power in realism, economic interest in liberalism and cultural identity in constructivism, dependent variables, i.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mmunities, encompass 'monistic expansion' in constructivism, 'dualistic interdependence' in liberalism, and 'pluralistic competition' in realism. It is concluded that their ultimate relationships will be shaped in the intersubjective political process of regionalism, which actively construct, as well as passively reflect, the interdependent economic structure of regionalization.

Key Words: ASEAN Community, East Asian Community, Realism, Liberalism, Constructivism, Monistic Expansion, Dualistic Interdependence, Pluralistic Competition